

인천 LNG 저장탱크 4기 보수 시작

6월까지 주변토양 동결설비 설치 완료 ... 8기 준공 앞당겨 차질 예방

한국가스공사는 가스누출이 확인된 인천 LNG 생산기지 저장탱크 4기에 대한 보수를 2008년 8월까지 마칠 계획이다.

가스공사는 3월5일 인천시청에서 첫 모임을 가진 민관합동대책기구인 <인천 LNG생산기지 안전대책협의회>에서 문제가 된 탱크 4기를 2월17일 모두 비웠으며 6월까지 탱크 주변토양을 얼리기 위한 동결설비 설치를 마치고 11월 본격적인 보수공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스누출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은 10-11월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공사는 2008년 8월까지 보수공사를 끝내면 시운전을 거쳐 10월부터 상업운전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국내 LNG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한전, 도시가스기업 등과 효율적인 수요관리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LNG 공급국가와 인수시기도 조절하기로 했다.

또 현재 건설중인 인천기지 2기, 평택기지 4기, 통영기지 2기 등 8기의 LNG 저장탱크 준공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저장능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안전대책협의회는 3월5일 첫 회의에서 13명의 위원 가운데 김종보 인하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으며 앞으로 매월 1차례씩 정기회의를 열고 가스누출 원인규명, 보수작업 추진 사항 등을 가스공사로부터 보고 받은 뒤 기술분석과 행정절차를 논의하기로 했다.

또 가스누출에 대한 보수공사 뿐만 아니라 인천시민의 불안 해소와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 등 장기적인 대책 마련도 추진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3/05>